

# 집합주택의 수납공간 크기와 생활태도 및 의식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 일본에서의 임대주택의 경우 —

Correlation of size of storage space with purchase pattern of living goods

— Rental Apartment in Japan —

崔 在 順\*  
Choi, Jae Soon

---

## Abstract

The present state of possession of durable consumer's goods in one family in Korean is could be similar with that of about 25 years ago in Japan. Korea meet a period of high rate of economic growth, Japan had already experienced this 25 years ago. It would be important to predict and plan the storage space in the planning house since purchase of durable consumers' goods increase greatly as the rapid economic growth.

In order to grasp the dweller's way of thinking and an attitude of living in small size house in Japan, questionnaire owe prepared focusing on the "small space", possession of excess living goods and dweller's state of living. From the analysis of the answers for questionnaire, the result is as follows.

(1) Most of dweller's conclude that the reason of the disorder in their house is that their house is too small, so that they think the part of their living goods must be disposed. This concept is also available even when they buy new living goods.

(2) Disposal of living goods not in use, restraint of buying those are considered inevitably. In addition, changing of place of furnitures is also introduced.

(3) The dweller living under 50m<sup>2</sup> area doesn't not consider the disorder the house by the living goods, they have interest in how the tradition could be kept their home.

---

\* 仁川大學校 家庭管理學科 副教授

# I. 서 론

## 1. 연구의 배경 및 시점

집은 사람이 들어가 사는 곳임과 동시에 사람이 사용하는 물건이 공존하고 있는 곳이다. 집안에서 사용되는 물건은 사용하는 사람이 필요로하는 내용(대상, 기능)에 따라 눈에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치워 두는 것·높은 곳에 혹은 낮은 곳에 두는 것·많은 공간을 차지하거나 적은 공간으로 충분한 것 등 다양하다. 다양한 생활용품이 적절한 수납방법으로 정리·정돈될 때 우리는 질서가 잡힌 쾌적한, 그리고 넓은 내부공간으로 느끼게 된다. 우리나라는 농경사회가 중심이 되어 생활하여 왔으므로 농작물의 수장공간을 비롯한 주공간분할과 수납가구 및 수납도구가 적절히 이용되어 질서가 잡힌 쾌적한 생활이 되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경제적 발전과 함께 도시화 근대화가 진점됨에 따라 인구의 도시집중화 현상이 일어나 집합주택의 대량공급이 불가피하고 특히 땅값의 폭등으로 임대주택의 건설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집합주택의 대량공급은 재래 단독주택에 비하여 한정된 좁은 공간으로 계획 건설 제공되게 된다. 이에 따라 집합주택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그들의 생활이 질서가 잡힌 쾌적한 생활이 되도록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주공간으로 계획 제시 되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25년전과 거의 같은 고도 경제 성장기에 있고,<sup>1)</sup> 대중소비 시대를 맞이하여 내구소비재의 소비증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어 한정된 거주공간에서 생활하지 않으면 안되는 집합주택에서는 적절한 수납공간을 포함한 간접이 계획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일본은 1960년대의 대중소비 시대에 내구소비재의 급속한 보급을 거치고, 1970년대 후반부터 대형화, 고급화, 다양화, 복수화의 경향을 띠고 보급됨에 따라 거주공간은 증가되면서도 실질적인 거주공간은 증가하지 않고 있다. <표 1>에서와 같이 가구점유율이

35%에 이르게 되면 물건의 외부공간에로의 혼려넘치는 현상과 거주자의 거주공간에 대한 불만이 여러모로 나타난다. 특히 임대주택에선 거주자의 임의대로 내부공간의 변경이나 설치는 금지되어 있어, 거주기간이 길거나 가족구성원의 변화가 있는 경우 내구소비재를 포함한 가구의 배치 변경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된다. 이때 거주자는 어떠한 생활태도와 의식을 갖고 최소한의 필요한 다양한 생활용품을 어떠한 수납방법으로 정리·정돈하여 질서가 잡힌 쾌적한 생활을 만들어 가는지, 그와 관련된 문제점은 무엇인지 조사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적절한 수납공간의 규모와 위치 계획에 필수적인 검토 항목으로 사료된다.

<표 1> 일본의 주공간 사용변화

년도	1958	1963	1968	1973	1978	단위
평균거주면적(%)	34.16	35.90	36.37	39.57	44.48	m <sup>2</sup>
가구점유면적	5.83	8.74	10.86	13.51	15.37	m <sup>2</sup>
생활가능면적	28.33	27.16	25.51	26.06	29.11	m <sup>2</sup>
가구점유율	17.07	24.35	29.86	34.14	34.55	%

- 주) (1) 가구면적은 모두 1년후의 값임.  
 (2) 주거면적은 실제 통계치는 다다미( 깔린 )수에 의한 계산이었으므로 가구면적과 비교하기 위하여 1조=1.65m<sup>2</sup>로 환산한 것임. 실제의 주거면적은 보다 협소함.

이와같은 배경 아래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집합주택을 대상으로 각 주호(住戶)내외의 생활용품과 가구들의 사용실태 특성 및 거주자의 생활태도와 의식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집합주택 주공간의 기초적 계획자료를 얻는데 의의가 있다.

## 2. 연구의 목적

집합주택의 수납공간 계획에 있어서 각공간의 사용 목적에 따라 수납공간을 적절히 설치해 주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나라 집합주택의 수납공간은 소규모 주택일수록 설계단계부터 설치되어 있지 않아, 우선 내구소비재를 포함하는 생활용품

의 보급율이 90%이상인 일본의 소규모 임대주택을 대상으로하여 정리·정돈에 대한 거주자의 생활태도와 의식을 파악하여 수납공간의 계획 조건을 밝히고자 한다. 거주자의 생활태도와 의식은 “거주공간의 협소함” “생활용품의 과다보유” “거주자의 정리·정돈에의 대응태도”의 세가지 관점에서 조사·분석한다.

## II. 조사내용 및 연구방법

위와같은 연구목적하에 문헌조사와 예비조사를 거쳐 작성된 질문지는 단지 선정과 단지내의 전주호의 가족형 조사 과정을 거쳐 조사대상이 확정되었으며, 1987년 10월말부터 11월중순까지 방문면접에 의한 질문지 배포와 방문 및 우편 회수방법이 동시에 이용되었다. 5인의 조사원이 담당하여 배포 및 회수한 조사 대상의 표집상황은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고, <표 3>에 조사대상 단지의 개요를, <그림 1>에 조사대상 주호의 평면도를 나타내었다. 질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각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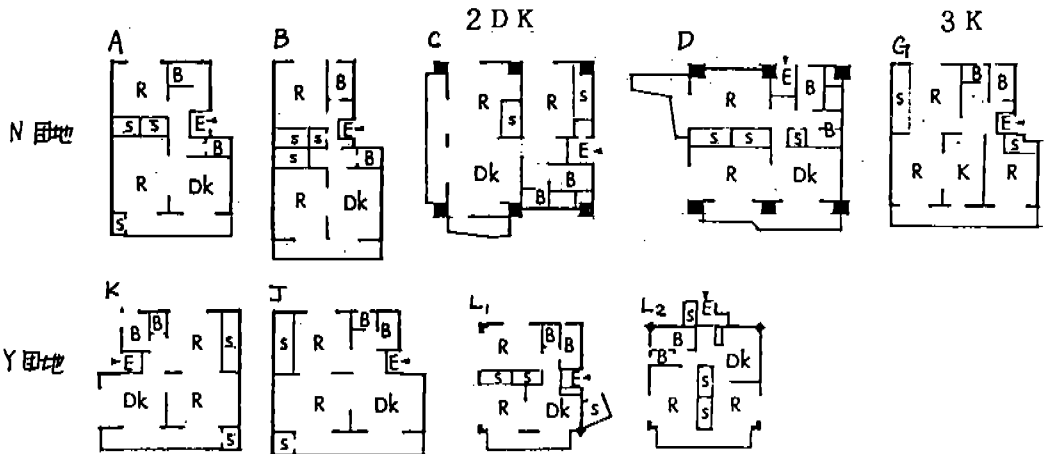
호(住戶)내외의 대표적 생활용품과 가구(45품목)들의 소유량과 사용위치, 수납하기 불편한 품목 및 내용을 포함한 현재의 주공간 사용실태의 특성 및 거주자의 주공간과 생활용품에 대한 만족도와 불편정도, 집안의 무질서화의 요인, 생활용품의 정리 방법, 생활용품에 대한 소유의식등의 생활태도와 의식이 조사되었다.

<표 2> 조사표의 회수상황

	배포표수	회수표수	유효표수	회수율	유효율
N團地	127	75	72	59.1%	96.0%
Y團地	155	81	80	52.3%	98.8%
전체	282	156	152	55.3%	97.4%

<표 3> 조사대상 단지의 개요

	N(NIJIGAOKA)	Y(YURIGAOKA)團地
입주년도	1975년	1960년
소재지	川崎市 麻生區	川崎市 麻生區
총세대수	1578호	1751戶
건물층수	5, 8, 11층	4~5층
대상주호	2DK, 3K(40~52㎡)	2DK(약 39~43㎡)



「범례」: R : 안방 또는 침실  
E : 현관  
L : 거실  
D : 식당  
K : 부엌

U : 다용도실  
Y : 출입구  
B : 욕실, 화장실  
S : 붙박이 수납공간  
BI : 발코니

(注) 계단실형 : A, B, K, J, G  
중층탑형 : L<sub>1</sub>, L<sub>2</sub>  
고층탑형 : C, D

<그림 1> 조사대상 주호의 평면도

수집된 조사자료는 개인별 응답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단순빈도 백분율과 교차분석법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조사대상의 일반사항은 <표 4>

에 정리된 바와 같이 단지별 차이가 가족인수, 세대주 연령, 거주기간에서 나타났다.

<표 4> 조사대상의 개요

	평균가족인수	평균세대주연령	평균거주년수	주동연결형태
N 단지	3.15人 어른 2.3人 어린이 0.8人	50.8才	7.1年	계단실형 25戶 고층탑형 43戶
Y 단지	2.74人 어른 2.2人 어린이 0.6人	55.6才	15.5年	계단실형 44戶 고층탑형 36戶
전 체	2.93人 어른 2.2人 어린이 0.7人	53.4才	11.5年	계단실형 73戶 탑 형 79戶

### III. 생활용품 및 주공간의 물적조건과 생활태도 및 의식

#### 1. 생활용품 및 주공간의 물적조건

조사대상 주호의 각 실의 기능별 구분에 의한 사용자주면적과 각 실별 설치 수납공간 면적을 주호형태로 수납율을 비교한 결과,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호 전체 수납율은 10%에서 14.4%의 범위를 나타내며, 가족공유공간의 수납율은 주호형태 차이가 큰것을 알 수 있다.

주호형에 따라서 조사된 주호수가 많지 않은 점과 수납율에 차이가 적은 형이 있어서 9개형의 주호를 5개유형으로 묶어, 각 유형별로 45개품목의 생활용품중 15품목의 소유형태를 소유유무와 총소유개수, 각 세대별 평균소유개수를 중심으로 <표 6>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여기에서 각 유형별로 소유형태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동이 가능한 의류용 수납도구인 4:조립식이동 옷장과 6:조립식 의류상자, 7:이동형 옷걸이이다.

#### 2. 집안의 무질서화의 요인과 생활용품의 정리방법

조사대상 가정의 일반사항에 따라 집안의 무질서화의 요인을 교차분석법을 사용하여 <표 7>에 단순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무질서화의 요인에 대한 응답을 전체적으로 볼때 “2:가족 공유의 공간이 좁다”, “5:설계단계부터의 수납공간이 부족하다”가 50%이상의 응답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28.3%만이 “1:정리 방법이 미숙하다”를 무질서화의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이것은 조사대상 주호가 모두 가족공유공간인 거실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2DK인 점, 수납율이 10%이상에도 불구하고 주호 규모가 52㎡이하의 소규모인 점 모두가 물적 요인으로서 지적된 요인으로 보인다. 무질서화의 요인에 대한 질문 항목별 일반사항을 살펴보면 “1:정리 방법이 미숙하다”에 응답한 경우 거주기간, 세대주 연령, 가족형에서 각 유형별 차이가 나타났으며, “8:주택크기에 비하여 생활용품이 많다”에선 거주기간, 세대주의 연령별 차이가 나타났다.

(표 5) 주호형별 수납율

지역구분 주호형(기호)	N団地					Y団地					平均	단위
	A	B	G	C	D	K	J	L1	L2			
a 주호면적	40.64	40.23	45.01	51.97	47.44	42.84	42.65	40.36	41.8	43.66	m <sup>2</sup>	
조사주호수	2	12	15	21	22	28	16	25	11	16.89	호	
b 침실용수납공간크기	2.58	3.39	3.95	4.24	2.9	2.38	2.38	2.6	2.53	2.99	m <sup>2</sup>	
침실면적합계	19.93	20.692	25.44	27.777	22.03	18.92	18.92	18.575	17.11	21.04	m <sup>2</sup>	
침실의 수납율	12.95	16.38	15.53	15.26	13.16	12.58	12.58	14.00	14.79	14.14	%	
c 부엌·식당용수납공간	1.21	1.21	1.21	1.16	1.16	1.75	1.75	1.41	1.15	1.33	m <sup>2</sup>	
창	0.6	0.89		0.85	0.72	1.24	1.24	1.82	1.45	1.10	m <sup>2</sup>	
가족공유면적	19.4	20.57	15.68	25.455	15.5	16.67	17.68	16.53	16.595	18.23	m <sup>2</sup>	
가족공유공간의수납율	9.33	10.21	7.72	7.90	12.13	17.94	16.91	19.54	15.67	13.04	%	
d 발코니	5.7	5.83	8.55	9.36	11.8	8.4	8.4	4.14		7.77	m <sup>2</sup>	
침실 및 가족공유면적	39.330	41.262	41.120	53.232	37.530	35.590	36.600	35.105	33.705	39.27	m <sup>2</sup>	
주호전체수납율	10.80	13.65	11.46	12.03	10.08	12.54	12.59	14.44	12.27	12.21	%	

※ 주호 전체의 수납율은 a의 주호면적에 대한  $\frac{b}{a}$ (침실용 수납공간) + C(부엌·식당용 수납공간) + d(창고)를  
 더하여 나누어진 값이다.

※ 주호형을 1 : A형과 D형  
 2 : G형과 C형  
 3 : K형과 J형  
 4 : B형  
 5 : L1형과 L2형  
 으로 분류한다.

※

(표 6) 주요 유형별 생활용품 소유형태

생활 용품 종류	서랍장		양복		조립식장		조립식장		이동형이		옷상자		책장		요불		고이		방석		잡용품		자전거	
	단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정리 장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	23	10	22	3	12	20	7	5	21	24	24	18	21	21	24	18	21	24	18	21	24	12	12	17
A형, D형	38	13	25	3	21	145	8	13	43	109	131	18	125	125	109	18	125	109	18	125	20	20	30	30
	1.7	1.3	1.1	1.0	1.8	7.3	1.1	2.6	2.0	4.5	5.5	1.0	6.0	6.0	4.5	1.0	6.0	4.5	1.0	6.0	1.7	1.7	1.8	1.8
2:	34	24	35	5	20	25	11	9	34	36	36	31	35	35	36	31	35	36	31	35	22	22	19	19
G형, C형	62	30	52	5	29	138	11	14	77	201	223	37	268	268	201	37	268	201	37	268	46	46	28	28
	1.8	1.3	1.5	1.0	1.5	5.5	1.0	1.6	2.3	5.6	6.2	1.2	7.7	7.7	5.6	1.2	7.7	5.6	1.2	7.7	2.1	2.1	1.5	1.5
3:	40	28	42	0	17	34	15	18	36	43	44	44	42	42	43	39	42	43	39	42	26	26	14	14
K형, J형	62	33	60	0	24	168	14	32	61	206	236	50	295	295	206	50	295	206	50	295	61	61	21	21
	1.6	1.2	1.4	1.4	1.4	4.9	0.9	1.8	1.7	4.8	5.4	1.3	7.0	7.0	4.8	1.3	7.0	4.8	1.3	7.0	2.3	2.3	1.5	1.5
4:	11	8	12	2	2	6	0	3	10	11	12	9	12	12	11	12	9	12	9	12	7	7	3	3
B형	23	9	15	3	2	14	0	5	15	52	52	13	66	66	52	13	66	52	13	66	13	13	4	4
	2.1	1.1	1.3	1.5	1.0	2.3	1.7	1.7	1.5	4.7	4.3	1.4	5.5	5.5	4.7	1.4	5.5	4.7	1.4	5.5	1.9	1.9	1.3	1.3
5:	33	13	34	7	24	28	7	6	29	35	36	33	35	35	35	33	35	35	33	35	24	24	17	17
L1형, L2형	61	17	45	12	45	176	7	14	56	164	205	45	238	238	164	45	238	164	45	238	54	54	29	29
	1.8	1.3	1.3	1.7	1.9	6.3	1.0	2.3	1.9	4.7	5.7	1.4	6.8	6.8	4.7	1.4	6.8	4.7	1.4	6.8	2.3	2.3	1.7	1.7

「범례」 상단 : 소유세대수  
 중단 : 총소유수  
 하단 : 세대당 평균소유수

〈표 7〉 일반사항별 무질서화의 요인에 대한 인식

		1		2		3		4		5		6		7		8		9		합 계
		정리방법의 미숙		가족공유의 공간이 좁다.		개인생활공간의 부족		방과 방의 연결이 잘못되어 있다.		설계단계부터의 수납공간이 부족		수납공간은 있으나 사용상 불편하다.		수납가구를 별로 갖고 있지 않다.		생활용품이 많다. 주텍크기에 비해		그 외		
		N	%	N	%	N	%	N	%	N	%	N	%	N	%	N	%	N	%	
家族 型	B.S	12	38.7	18	58.1	11	35.5	4	12.9	15	48.4	3	9.7	3	9.7	6	19.4	0	0.0	31
	Co	12	37.5	18	56.3	9	28.1	3	9.4	17	53.1	4	12.5	2	6.3	10	31.3	2	6.3	32
	Cb, Ci	7	33.3	10	47.6	2	9.5	3	14.3	11	52.4	5	23.8	4	19.0	1	4.8	0	0.0	21
	Ck	7	25.0	21	75.0	14	50.0	7	25.0	16	57.1	8	28.6	4	14.3	4	14.3	2	7.1	28
	Cm, Cf	3	11.1	19	70.4	5	18.5	2	7.4	11	40.7	2	7.4	6	22.2	5	18.5	1	3.7	27
	Cc	2	15.4	9	69.2	6	46.2	1	7.7	6	46.2	0	0.0	0	0.0	1	7.7	0	0.0	13
家族 數	1人	7	33.3	13	61.9	8	38.1	2	9.5	11	52.4	1	4.8	2	9.5	2	9.5	0	0.0	21
	2人	17	40.5	23	54.8	12	28.6	5	11.9	21	50.0	6	14.3	3	7.1	14	33.3	2	4.8	42
	3人	5	17.2	15	51.7	8	27.6	5	17.2	12	41.4	2	6.9	5	17.2	4	13.8	2	6.9	29
	4人	10	20.8	34	70.8	13	27.1	6	12.5	26	54.2	10	20.8	9	18.8	6	12.5	1	2.1	48
	5人	4	40.0	8	80.0	4	40.0	1	10.0	5	50.0	3	30.0	0	0.0	1	10.0	0	0.0	10
	6人	0	0.0	2	100	2	100	1	50.0	1	50.0	0	0.0	0	0.0	0	0.0	0	0.0	2
居住 年 數	1年 未滿	2	40.0	3	60.0	2	40.0	1	20.0	1	20.0	2	40.0	1	20.0	1	20.0	1	20.0	5
	1-5 未滿	12	35.3	18	52.9	8	23.5	3	8.8	20	58.8	6	17.6	4	11.8	6	17.6	1	2.9	34
	5-10未滿	14	34.1	24	58.5	13	31.7	11	26.8	19	46.3	9	22.0	5	12.2	7	17.1	3	7.3	41
	10-15未滿	7	23.3	19	63.3	7	23.3	0	0.0	10	33.3	2	6.7	3	10.0	5	16.7	0	0.0	30
	15-20未滿	1	10.0	8	80.0	4	40.0	1	10.0	5	50.0	1	10.0	2	20.0	1	10.0	0	0.0	10
	20年以上	7	21.9	23	71.9	13	40.6	4	12.5	21	65.6	2	6.3	4	12.5	7	21.9	0	0.0	32
世 帯 主 年 令	30-39歲	14	28.6	32	65.3	16	32.7	10	20.4	25	51.0	12	24.5	5	10.2	5	10.2	2	4.1	26
	40-49歲	4	22.2	11	61.1	3	16.7	2	11.1	9	50.0	2	11.1	5	27.8	1	5.6	1	5.6	39
	50-59歲	3	15.0	15	75.0	6	30.0	0	0.0	7	35.0	1	5.0	4	20.0	3	15.0	0	0.0	20
	60-69歲	13	33.3	21	53.8	13	33.3	7	17.9	21	53.8	5	12.8	2	5.1	11	28.2	1	2.6	18
	70歲以上	9	34.6	16	61.5	9	34.6	1	3.8	14	53.8	2	7.7	3	11.5	7	26.9	1	3.8	49
団 地	N 團地	23	31.9	37	51.4	15	20.8	7	9.7	32	44.4	12	16.7	8	11.1	11	15.3	3	4.2	72
	Y 團地	20	25.0	58	72.5	32	40.0	13	16.3	44	55.0	10	12.5	11	13.8	16	20.0	2	2.5	80
全 体		43	28.3	95	62.5	47	30.9	20	13.2	76	50.0	22	14.5	19	12.5	27	17.8	5	3.3	152

注) 중복응답을 허용한 결과치

일반사항이 여러 항목에서 유형별 차이와 관계 없이 “5:설계단계부터의 수납공간이 부족하다”가 무질서화의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무질서화의 요인으로 지적된 항목은 “3:개인생활공간이 좁다” “7:수납가구를 별로 갖고 있지 않다”에서 나타났다.

주공간규모의 협소함등의 물적요인이 무질서화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설계단계부터의 수납공간이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납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지적된 점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수납율의 차이가 미치는 영향을 검토 분석하기 위

하여 교차분석표를 <표 8>과 같이 정리하여 보았다. 앞에서 제시된 <표 5>에서 주호 유형별로 분류된 것을 참고로 각각의 특성을 살펴 보면 가족공유의 공간과 개인생활공간이 다른 주호보다 넓은 2:G형과 C형, 그리고 4:B형에선 “2:가족 공유의 공간이 좁다”가 무질서화의 요인으로 적게 지적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4:B형에선 “2:가족 공유의 공간이 좁다”와 “5:설계단계부터의 수납공간이 부족하다”에서 다른 주호형에 비하여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오히려 “1:정리 방법이 미숙하다”에선 제일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표 8> 주호유형별 무질서화의 요인

주호형 (주호수)	정리방법의 미숙	가족공유의 공간이 좁다.	개인생활공간이 좁다.	방과 방의 면적이 잘못되어 있다.	설계단계부터의 수납공간이 부족	수납공간은 있으나 사용상 불편하다.	수납가구를 별로 갖고 있지 않다.	주택크기에 비해 생활용품이 많다.	그 외	f %	
	1	2	3	4	5	6	7	8			9
1 : A, D(24)	7 29.2	15 62.5	3 12.5	3 12.5	14 58.3	6 25.0	3 12.5	6 25.0	0	0.0	f %
2 : G, C(36)	11 30.6	17 47.2	8 22.2	2 5.6	15 41.7	6 16.7	5 13.9	3 8.3	2	5.6	f %
3 : K, J(44)	11 25.0	32 72.7	18 40.9	4 9.1	28 63.6	4 9.1	4 9.1	10 22.7	1	2.3	f %
4 : B(12)	5 41.7	5 41.7	4 33.3	2 16.7	3 25.0	0 0.0	0 0.0	2 16.7	1	8.3	f %
5 : L <sub>1</sub> , L <sub>2</sub> (36)	9 25.0	26 72.2	14 38.9	9 25.0	16 44.4	6 16.7	7 19.4	6 16.7	1	2.8	f %

\* 주호형 분류 번호가 높아질수록 수납율이 큰 편임

「범례」 주호형 1 : A형과 D형(N단지)

상단 : 응답개소(f)

2 : G형과 C형(N단지)

하단 : 응답비율(%)

3형 : K형과 J형(Y단지)

4형 : B형 (N단지)

5형 : L1형과 L2형(Y단지)

注) 중복응답을 허용한 결과치임.



그러면 무질서화의 요인으로 지적한 항목들과 수납방법, 생활용품 보유형태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교차분석표를 <표 9> <표 10> <표 11>에 각각 나타내었다.

“3: 개인생활공간이 좁다”를 포함한 거주공간의 협소함을 무질서화의 요인으로 지적한 거주자들의 수납방법은 현상에서의 최선행과 필요없는 것을

처분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이용되었고, 구입 절약을 동시에 시도하였다. 그러나 실제의 생활용품 보유형태와의 관계에서는 물건처분형이 대부분이기는 하나 물건을 쌓아 두거나 타인을 의식한 물건 갖추기정도 많아, 생활용품의 과다 보유형태를 촉진하고 이것은 무질서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함을 알 수 있었다.

<표 9> 무질서화의 요인과 수납방법의 관계

	N	A	B	C	D	E	F	G	H	I
1 정리 방법의 미숙	43		○	○	○	○				
2 가족 공유의 공간이 좁다.	95	○	○		○	○				
3 개인생활 공간이 좁다.	47	○	○		○	○				
4 방과 방의 연결이 잘못되어 있다.	20	○	○		○	○				
5 설계단계부터의 수납공간이 부족하다.	76	○	○		○					
6 수납공간은 있으나 사용상 불편하다.	22	○		○	○	○				
7 수납가구를 별로 갖고 있지 않다.	19	○	○	○	○					
8 주택크기에 비해 생활용품이 많다.	27	○	○	○	○					
9 그외( )	5	○	○	○	○	○	○	○		○

凡 例 20~ 40% ○  
 40~ 60% ○  
 60~ 80% ○  
 80~100% ○

(注) 중복응답을 허용한 결과치임.

A 구입절약형  
 B 처분형  
 C 수납가구 구입형  
 D 현상에서 최선행  
 E 가구위치 변경, 궁리형  
 F 공동이용 창고  
 G 도피형  
 H 무관심형  
 I 그 이외

<표 10> 무질서화의 요인과 생활용품 보유형태

	N	I	II	III	IV	V	VI	VII
1 정리 방법의 미숙	43			○	○		○	○
2 가족 공유의 공간이 좁다.	95			○	○	○		
3 개인생활 공간이 좁다.	47		○	○	○	○	○	○
4 방과 방의 연결이 잘못되어 있다.	20	○		○	○		○	○
5 설계단계부터의 수납공간이 부족하다.	76		○	○	○	○	○	
6 수납공간은 있으나 사용상 불편하다.	22		○	○	○	○		○
7 수납가구를 별로 갖고 있지 않다.	19			○	○	○	○	○
8 주택크기에 비해 생활용품이 많다.	27		○	○	○	○	○	○
9 그외( )	5		○	○	○	○	○	

凡 例 20~ 40% ○  
 40~ 60% ○  
 60~ 80% ○  
 80~100% ○

(注) 중복응답을 허용한 결과치임.

I 새로운것, 욕구형  
 II 갖추기, 격식형  
 III 물건 처분형  
 IV 물건 쌓아두기형  
 V 생활 즐기기형  
 VI 무관심형  
 VII 타인의식, 물건갖추기형

〈표 11〉 수납방법과 생활용품 보유형태

		N	I	II	III	IV	V	VI	VII
A	둘 장소가 없어 되도록 물건을 사지 않는다.	73			○	○	○	○	
B	필요없는 것을 처분한다.	101			○	○	○	○	
C	수납가구를 구입하여 생활용품을 정리한다.	22				○	○	○	
D	현재의 상태 그대로에서 정리 방법을 연구 실천한다.	81			○	○	○	○	○
E	가구의 위치를 바꾸면서 실내를 넓게 쓰도록 궁리한다.	57		○	○	○	○		○
F	여러 가구가 같이 사용하는 창고, 허드레간을 이용한다.	5	○	○	○	○	○	○	○
G	다른 집으로 이사한다.	3			○		○	○	○
H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	3				○		○	○
I	그외의 궁리를 해 본다. ( )	11		○	○	○	○	○	

凡 例 20~ 40% ○  
 40~ 60% ○  
 60~ 80% ○  
 80~100% ○  
 (注) 중복응답을 허용한 결과치임.

I 새로운것, 욕구형  
 II 갖추기, 격식형  
 III 물건 처분형  
 IV 물건 쌓아두기형  
 V 생활 즐기기형  
 VI 무관심형  
 VII 타인의식, 물건갖추기형

#### IV. 결 론

집합주택의 수납공간과 관련된 거주자의 생활태도와 의식을 “거주공간의 협소함” “생활용품의 과다보유” “거주자의 생활태도”의 세가지 관점에서 조사·분석한 결과, 일본의 소규모 임대주택에 사는 거주자는 정리·정돈에 대한 무질서화에의 영향 요인을 “거주공간의 협소함”이라고 생각하며, 그에 대한 정리 및 수납방법은 “물건을 처분하여”가 가장 많이 실행되고 있는 방법이고, 실제의 물건 구입의식에서도 “물건 구입형”보다 “물건 처분형”이 많은 것이 밝혀졌다. 더우기 주호별 수납을

보다 주호 규모나 거주기간, 세대주의 연령, 가족형의 유형별 차이가 생활태도나 의식이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밝혀졌다.

#### 참 고 문 헌

1. 경제기획원, 한국의 사회지표, 1987년.
2. 鄭智相, 國民生活時間の日韓比較, 東京工業大學修士學位論文, 1989年.
3. 하미경, 공공임대 아파트 개발을 위한 의식조사 및 주거수준에 관한 연구, 연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년.